

마이스터·특성화 고 인기몰이 전문계 고 '제2 전성시대' 여나

정부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와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이스터고 졸업생 3~5%를 삼성전자에 취업시키기로 한데다 특성화고에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선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에 중학교 내신성적 평균이 30%대인 우수 학생들이 몰렸다.

정부 파격 지원...취업 유리 학비 면제 신입생 모집 성적우수 학생 대거 몰려

4일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차설비 공업고에 따르면 최근 2011학년도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원 80명 모집에 286명이 지원, 3.6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광역에 있는 한국항공물류고에도 245명이 지원,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지원자들의 학업성적도 매우 우수하다. 광주자동차설비 공업고 송병림 교무부장은 "입학사정 결과 지원자들의 중학교 내신 평균이 30.5%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의 인기몰이는 정부의 전폭지원과 학생들의 실리적인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에 기술사비 지원까지 받고 졸업한 뒤에는 취업을 보장한다. 취업 확정자는 임업을 4년 동안 연기할 수도 있다.

또 삼성전자가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예정자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 취업문이 열리면서

따라 마이스터고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선발 규모는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전체 정원(총 3600명)의 3~5%인 100~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학년 때 채용 예정자로 선발되면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삼성전자로부터 500만원 가량의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2013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출신 1기생으로 삼성전자에 최종 채용된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각각 13곳, 62곳에 달하는 특성화고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690개 특성화고 재학생에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등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수강하면 근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2012년부터 시행된다.

또 취업지원 예산 510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를 고품격 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취업준비 학교로 정제화한다.

특성화고 학생 중 우수학생 1000명에게는 해외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 1만명은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 특성화고 진학생이 크게 늘었다. 최근 전남 62개 특성화고의 신입생 전형결과 3일 현재 정원 7878명에 모두 7146명이 지원, 1:1의 경쟁률에 육박했다. 올해 전남지역 중학교 졸업자가 줄고 특성화고의 정원이 400명 증원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경쟁률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주 12개 특성화고도 신입생 지원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학교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이스터고=독일어로 '명장·장인'이라는 뜻의 마이스터를 본떠 이름을 지었다. 정식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기술 명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적으로 모두 21개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자동차설비 공업고와 한국항공물류고 2곳이 있다. 학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과부에서 정한다.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

5일 오후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에서 17쌍의 신랑과 외국인 신부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 이중인출

광주~나주간 무료환승 구간...승객들 잇단 항의

최근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에서 요금이 두 번 지불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자영업자 박모(54)씨. 광산여객과 나주교통을 차례로 환승하던 박씨는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하차합니다'라는 안내말과 함께 1100원이 찍혔다. 무료 환승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돼 박씨는 운전자에게 항의했고, 1100원을 환불받았다.

광주와 나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경우 하차시에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게 돼 있다. 거리도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시계의 구간요금에 적용되는 구간을 환승하는 경우 하차시 일반 기본요금을 제외한 시계의 구간

요금만 추가 징수하기 때문이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무료환승 구간에서 하차시 요금이 추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께 박씨는 시내버스 요금을 관리하는 (주)마이비카드 영업소에 최근 3개월 치 마이비카드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주)마이비 카드 영업소에서 1만여원의 추가 요금을 환불받았다.

박씨는 "최근 3개월 내역만 보더라도 1만원이 빠져는데,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모르는 사이에 추가 부과됐는지 모르는 일"이라며 "최근 3년치 내역서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주

부가된 것 같지만 잘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나주교통을 타고다니는 주민들은 내역서를 받아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시에 따르면 5일 현재 나주시역에서 시내버스 이용객은 하루 3만 2500여 명이며, 이 중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나주교통 관계자는 "운전자 승객의 도착지를 일일이 물어 요금을 부과하는데,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 승차요금을 부과하면 한꺼번에 기계가 인식해 오작동이 일어난 것"이라며 "운전자들에게 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에 승차 단말기 조작을 하라고 교육하고 있으며, 추가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원기자 srchoi@

나원침 (8162) 김종두



재생타이어 작업중 식탁막 맞아 숨져

지난 4일 오후 6시58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타이어 판매점에서 종업원 권모(42)씨가 길이 1.5m·지름 2.5cm~3cm 크기의 원형 쇠토막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권씨는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기계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기계에 장착된 쇠토막이 갑자기 튀겨져 나오면서 얼굴과 가슴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계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공기조절기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암 삼호읍 동부 9일 수돗물 중단

영암군은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서호IC 개선품사 구간 내 상수도관 연결 공사로 삼호읍 동부지역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단수 지역은 삼호읍 동호, 서호, 산호, 나물, 용양, 난전리 등 동부지역 3천여 가구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외국인등록증 위조 중유학생 4명 검거

7일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 대비 응시하기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인 유학생 등 4명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중국 위조입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2장을 국내로 들여와 대리시험에 사용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A(29)씨 등 4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50대 주점주인 10대 종업원 성추행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50대 주점주인 경찰서행."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J호프집 주인 박모(51·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자신의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 A(19)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가 소문이 돌아 두 달만에 물통." /서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u@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주방에서 일하는 A양의 뒷모습을 보고 플래다가 꺼안은 뒤 은밀한 부위를 더듬었는데, 경찰에서 "열심히 일하는 A양의 모습이 너무 예뻐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제 위장결혼 알선책 구속 베트남 여성 7명 1700만원씩 받고 입국 도와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5일 한국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해 준 한모(45)씨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모집책 한모(48)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김모(40)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D(19)양 등 7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아내와 짜고 베트남 여성 D양 등 7명으로부터 1700만원씩 받고 내국인 남성 김씨 등 7명과 위장결혼 후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모집책으로부터 소개받은 내국인 김씨 등 7명에게 베트남 관광과 사비로 300만~500만원씩 주겠다고 접근, 베트남으로 데려가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로 들여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

주말·휴일 오전 짙은 안개 주의

주말과 휴일은 6, 7일 광주·전남지역은 오전에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에 짙은 안개(가시거리 1km미만)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지만, 낮 동안에도 박무(가시거리 1km 이상~10km 미만)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다"고 5일 밝혔다. 안개와 박무는 휴일인 7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서쪽에서 다소 습한 공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새벽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 내륙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많이 나타났다"며 "8일 기압골이 북쪽으로 지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안개와 박무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막바지 감 수확

5일 강진군 병영면의 한 감나무 농장에서 늦가을 감 따기가 한창이다. '가을'을 들뜬 담고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따는 아낙네들의 손질이 바쁘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G20 대비 13일까지 갑호비상 근무

경찰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닷새 앞둔 6일 '갑호비상' 체제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령으로 행사 폐막 다음날인 13일까지 8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 경찰은 코엑스 등 G20 행사장 주변에 사상 최대인 5만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철동 같은 경비·경호 태세를 갖춘 예정이다. 하지만, G20에 반대하는 진보계열 시민사회가 다음주를 공동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집회, 기자회견, 학술행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G20 반대 단체와 별개로 'UDT(해군 특수여전단 수중폭파대) 동지회'의 일부 강성 회원이 보훈혁명을 요구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 방화나 할복, 고속도로 점거, 대형 탱크로리 폭파 등의 시위를 계획한다는 첩보도 있다. 경찰청은 갑호비상 기간 대규모 경계와 함께 서울로 집중되면서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기본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연일뉴스

가정폭력 남편 살해 할머니 구속취소 순천지청, 시민위 석방광고 수용

50여 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려 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가 검찰의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으로 구속이 취소됐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고충로 남양면 모 마을에서 남편 강모(83)씨를 둔 기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유모(여·76)씨(광주일보 10월 22일 6면)에 대해 검찰시 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석방 권고를 함께 따라 구속을 취소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유씨가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 살인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후 검찰에 송치된 유씨는

"죄를 지은 만큼 교도소를 가지 않겠다. 남편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다. 정신과 전문의 상담 결과 등을 참고로 검찰은 구속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유씨는 20살에 남편 강씨와 결혼 후, 내리 7명의 딸을 낳으면서 아들을 원하는 남편과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졌다. 자녀들의 출가 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고, 유씨는 최근 버거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과 "왜 병원에 가지 않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창고에 있던 각목으로 남편을 내리쳐 평생 잊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u@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8분 / 해질 17시 34분 / 달출몰 06시 51분 / 달몰 17시 18분

북극 물든 무등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맑음 6/19℃	
목포	맑음 7/18℃	
여수	맑음 10/18℃	
완도	맑음 7/18℃	
구례	맑음 2/19℃	
해남	맑음 2/19℃	
장흥	맑음 2/19℃	
고흥	맑음 3/20℃	
순천	맑음 7/20℃	
영광	맑음 3/18℃	
진도	맑음 3/19℃	
전주	맑음 6/19℃	
남원	맑음 1/19℃	
육산도	맑음 12/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0.5~1.0m 19.5 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19.5 0.5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0.5~1.0m 01:23 06: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08:55 02:1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6/18	8/13	5/12	2/15	6/16	6/16

하나SK카드

2500만 고객에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4547 0729 5678 9032
SK HANASK KCR SHEN YONG

혜대 위시 50%할인 / 영호 전역 2만여 / 주유, 마트, 대형 2천원 할인 / 학원, 배달 1만원 할인